# 등진감사와 정면감사의 복음행복

## (시편 100:1~5)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등진감사와 정면감사의 복음행복>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등진감사와 정면감사의 복음행복'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새로 개통된 경강선 KTX를 타고 강릉에 오셨습니다. 저와는 한 살 차이나는 목사님이신데 저는 나이가 많은 삼촌 같고 그 분은 조카같이 보일 정도로 젊으십니다. 그런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마 연말연시에 교회가 바쁘다 보니 피곤하셨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목사님이 속을 태우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문제 있는 교인들 때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상태이다 보니 목사님의 마음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대화중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를 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것으로 기뻐할 때에 혼자서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할 때에 기뻐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결국 목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점으로 돌아와서 목회현장을 다시 한 번 돌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행복을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껴 흐뭇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흐뭇함에는 성취감이 있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유로움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복은 분명히 충분한 만족과 기쁨으로 흐뭇함을 느끼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연애와 결혼을 잘 할 수 있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승진을 잘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갈등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행복이라는 항아리를 채우기 위한 내용물로 오해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행복의 표현방식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직장생활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연애와 결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행복해야 자녀의 양육 또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삶의 모든 행위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원재료는 추구해서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본적으로 감사가 주된 표현방식이어야 합니다. 주어진 행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는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곧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행복이 주어지게 되고 삶의 모든 행위가 행복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사명에는 두 가지 감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등지고 하는 감사와 정면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 감사가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표현될 때에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비교적 단순한 문장으로 너무나 당연해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선민들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여호와를 향한 그의 유일하심과 참된 신 되심의 가장 강력한 신앙고백입니다. 모든 다른 신들을 부인하고 오직 언약의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할 때에 사용하는 언약의 결단과 맹세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할 때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

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거의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자 백성들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수24:14-18). 이러한 고백의 절정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에서 승리한 뒤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모든 다른 신은 신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1~2절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말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이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찬송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라는 말은 여호와만이 기쁨이 되심을 믿으며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섬기며'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종 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종이 되며 기쁨으로 노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신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대상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호와만이 기쁨이 된다고 믿으므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라는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돈'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기쁨으로 돈을 섬기며 노래하면서'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는 말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을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돈 앞으로 나아갈 때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잡을 때까지 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돈은 나에게 약속하지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추구해 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께 직접적으로 나가서 여호와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만족거리는 추구함이 필요하지만 붙잡을 기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음은 하나님의 자발

성과 능동성과 주도적인 관계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로 약속하신 특별한 장소인 성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돈을 붙잡듯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성전에 나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아주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장소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게 오셔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기쁨과 만족거리는 내가 추구해 들어갑니다. 잡을 때까지 추구하다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과 만족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정하신 장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향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장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 없지만 안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맞추는 것은 마치 젊은이들이 소개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정하고 나올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기에 두 가지 감사로서 표현됩니다.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감사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성전에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와 성전 뜰을 구분 짓는 문을 통과할 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거리를 성전 뜰 문 밖에서 찾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있는 이 세상을 등진다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채워야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으로 여길 때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남겨진 육체가 있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마치 목장의 양들을 돌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받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장의 양은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스

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로 계신 목장의 양들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진 감사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요청합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기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세상에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등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나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향하며 하나님의 자발성과 능동성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감사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마음을 파고드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이 침투한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세상이 들어온 마음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의 장소여야 합니다. 마음은 본래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담는다면 불결해집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강으로 떨어져 죽었던 것처럼 세상이 침투한 이 상태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몸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졌기에 세상의 상황을 보며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등진 감사입니다. 이럴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있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 청결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면감사입니다.
이러한 등진 감사와 정면감사가 복음의 행복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동성과 자발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선하시고 나를 향하여 능동적으로 인자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면 나를 향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비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비록 나약하여 세상에 물들기 쉽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주실 만큼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향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등진 삶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목자가 양을 이끌 듯이 성실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며 복음이 주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침투한 마음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을 정면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등진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면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와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일 년 내내 행복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기준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는 등진 감사를 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는 정면감사를 함으로써 가는 곳마다 우리의 행복을 표현하는 십자가 생활화가 한 순간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